

제 1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일시 : 2015.05.10.(일) 10: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근 순성놀이코스
(와룡공원~이화동 벽화마을)

甲子兪山重刊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성균관대학교
養賢齋

儒學大學

순성놀이 코스



와룡공원 갈림길



혜화문 惠化門



낙산공원 암문 暗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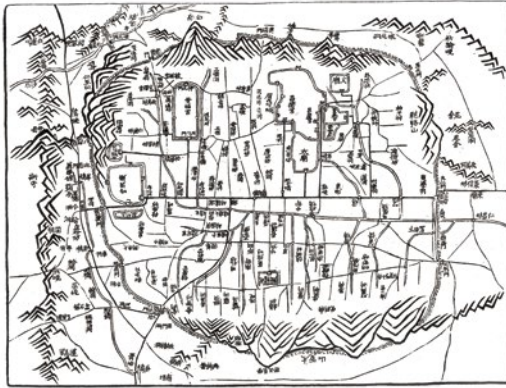


이화동 벽화마을



만리성

순성놀이의 개요



서울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태조 5년(1396), 백악(북악산)·낙타(낙산)·목멱(남산)·인왕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한 이후 여러 차례 개축하였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랫동안(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다.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승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화문·창의문이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다.

순성놀이

먼 곳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한양도성은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몇날 며칠을 걸어서 온 이들이었으니 먼발치에서 한양도성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드디어 한양이구나' 싶은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다. 특히 과거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경우, 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니 한양도성의 의미가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중에는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급제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도성민들에게도 전해져 '순성놀이'라는 놀이가 생겼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아들인 유본예(1777~1842)도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봄여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안팎의 경치를 구경한다'고 적었다.

출처 : 서울시 『한양도성가이드북』

와룡공원의 어원은 두가지가 전한다. 이 일대가 용이 누워 있는 형상을 했기 때문에 '와룡臥龍'이라고 불렀다는 설과 1914년도에 이 인근의 승문동承文洞, 이동泥洞, 수문동水門洞 등의 지명들이 병합되어 와룡동臥龍洞으로 불렀다는 설이 그것이다. 이곳은 토층이 얇아 수목생육이 용이한 편은 아니나 수목으로 우거진 아름다운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이곳은 삼청동과 창경궁, 북악산 일대가 연접해 있고 이곳의 말바위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의 주요지점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View Point가 되었다.



인근의 기불만한 곳

말바위[전망대]

말바위[전망대]라는 표현에는 크게 두 갈래의 유래가 전한다. 첫째는 말바위의 말이 동물 말horse라는 의미에서 말을 타고 가던 선비가 풍광을 즐기며 자주 쉬어 갔다든지, 모양새가 말의 안장이나 머리를 닮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말'이 동물로서의 말이 아니라 끝未이라는 의미에서 북악 산줄기의 말단에 해당하기에 이름에 '말'이 붙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의 뛰어난 풍광은 이미 예전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이곳은 서울의 우수조망명소 중 하나로 지정되어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숙정문

숙정문은 조선시대 4대문의 하나로 본래 개국 초에는 숙청문肅淸門으로 불렸다. 현재의 명칭은 조선시대에 이 문이 북정문北靖門과 혼용되면서 숙정문肅靖門이라는 이름으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설이 가장 유력하다. 태종 때인 1413년에 풍수에 근거한 최양선의 건의가 있는 후로 숙정문과 창의문은 문은 있으나 늘 폐쇄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러나 항상 이곳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을 두고 다른 설도 전한다. 이 방향이 방위 상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을 열려면 음기가 들어와 도성의 부녀자들이 음란해질 것을 우려해서 문을 늘 닫아 두었다는 것이다. 물론 숙정문도 가끔 열릴 때가 있었다. 문을 열면 음기가 들어오니 음기가 부족한 가문에는 오히려 비를 몰고 오지 않을까하는 기대에서 간혹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인근의 기뵈만한 곳

삼청각三清閣은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전통 문화공연장이다. 1970년대 요정정치인 산실이었던 이곳은 1972년에 건립되어 남복회담, 한일회담, 여야 정치인 협상 등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점차 손님이 줄어들어, 199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2000년에는 서울시 문화시설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 공연장과 한식당, 찻집 등이 들어선 6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전통문화공연장으로 재개장하였다. 삼청각의 운영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세종문화회관이 맡고 있다.



길상사吉祥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고급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법명 길상화)이 대원각을 송광사에 시주하여 탄생하였다. 1995년 6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의 말사인 '대법사'로 등록하였으며 1997년에 길상사로 사찰명을 바꾸어 창건하였다. 사찰 내의 일부 건물은 개보수하였으나 대부분의 건물은 대원각 시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이 수집한 전적典籍, 서화書畫 등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운화문매병 등 국보급 문화재와 국내 최고 수준의 서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5월과 10월에 각 보름씩 소장품을 공개하는 전시회를 연다.



최순우생가는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로 유명한 최순우가 난 곳이다. 6·25사변 중에는 생명을 내걸고 소장 문화재를 부산으로 안전하게 운반에 생명을 내걸 만큼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그는, 1981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구중앙청 청사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자 그 주역으로서 일하다가 격무와 신병으로 개관을 눈앞에 두고 순직하였다. 성북동에 있는 그의 생가를 방문하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박한 기와집과, 담백한 달향아리를 만날 수 있다.



심우장尋牛莊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 시인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韓龍雲이 거처하다가 임종을 맞이한 곳이다. 평생 글을 쓰며 민족운동에 매진하고 불교의 혁신을 위해 애를 쓰던 그는 광복 한 해 전인 1944년 5월 9일, 성북동의 심우장에서 사망했다. '심우장을 직역하면 '소 찾는 집'이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대개 소가 마음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이므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자하는 만해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당시의 풍수지리와는 다르게 집은 북향하고 있는데, 만해가 남쪽에 있는 조선총독부를 등지기 위하여 일부러 북향으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비록 넓고 초라한 심우장이지만, 그 속에서 평생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만해의 인격을 느낄 수 있다. 그는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3·1만세운동 이후 33인의 민족대표 대부분이 탄압과 회유에 넘어가 변절하였으나 그는 지조를 꿋꿋이 지켜 당시 조선 청년들의 존경을 받았다.



혜화문惠化門은 한양도성의 북동쪽에 있어 흔히 동소문東小門이라 불린다. 처음 건립할 때(태종 5년, 1405)의 명칭은 홍화문弘化門이었는데, 성종 15년(1484)에 세운 창경궁의 정문을 홍화문이라 명명하게 되자 중종 6년(1511)에 혜화문으로 개칭하였다. 서울 시내에서 이 문을 나르면 수유리를 거쳐 의정부와 포천 방면으로 갈 수 있다. 혜화문은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헐렸다가 1994년에 본래의 자리보다 북쪽으로 옮겨 새로 지었다. 혜화문 홍예의 천장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근에 새로 인한 피해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봉황을 그려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소문四小門

- 東北-홍화문弘化門
惠化門으로 개칭
- 南西-소택문昭德門
昭義門으로 개칭
- 東南-광희문光熙門
- 西北-창의문彰義門

인근의 기뵈만한 곳

옛 서울시장공관은 1941년 12월 24일, 다나카사부로 田中三郎의 소유로 등기부에 최초 등재된 뒤 하준석, 손원일 前 국방부장관, 한석진의 손을 거쳐 1959년부터 1979년까지 대법원장 공관으로 사용되었다. 그 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시장 공관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한양도성 순성안내센터 및 전시관으로 임시활용되었다. 현재는 성곽 복원을 위해 폐쇄된 상태다.



혜화로터리와 여운형呂運亨 1947년 7월 23일 오후 1시 경 명륜동에 거주하던 정무묵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민정관 존슨과 민정장관직을 제안받는 비밀회동을 위해 원남동 방면으로 차량에 타고 이동 중이었다. 1시 15분 무렵, 그의 차량이 혜화동 로터리를 지날 때, 그의 차량이 혜화동 로터리를 지날 무렵 트럭 한 대가 그를 막아섰고 그 사이 한지근이 그의 차량에 접근하여 총격 끝에 그를 암살하였다.



낙산공원 駱山公園은 서울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으로 내사산 중 가장 낮다. 생긴 모양이 낙타 등처럼 생겨 낙타산, 타락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낙산 구간은 경사가 완만하여 산책하듯 걷기에 적당하다. 특히 가톨릭대학 뒤편 길을 걷다보면 축조 시기별로 성돌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수 있다. 장수마을에서 입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낙산공원 놀이광장이 나타난다. 낙산공원은 서울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불릴 정도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노을과 야경이 아름답다. 백악과 인왕산에서 서울의 원경이 보인다면, 이곳에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도심을 느낄 수 있다.



인근의 가볼만한 곳

장수마을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였고 40~5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계획되었으나 전면철거방식 대신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어 주민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 형성이 촉진되고 벽화와 이야기들이 곳곳에 그려지면서 하나의 테마있는 마을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장수마을은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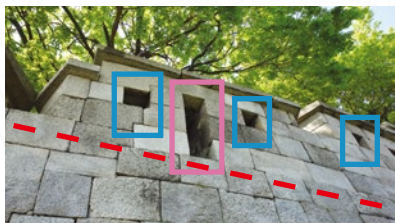
각자성석 刻字城石은 글자가 새겨진 성돌이라는 뜻으로 성곽을 정비할 때 구간을 구분하고 그곳의 명칭과 책임 군현(조선초기)을 적거나 혹은 감독관과 책임기술자의 이름, 날짜 등(조선후기)을 적었다. 주로 낙산 구간의 끝부분인 동대문 성곽공원 근처에 몰려 있지만 와룡공원에서 혜화문으로 가는 길, 혜화문에서 낙산공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발견된다.



순성의 TIP

서울성곽의 기본구조

서울성곽은 기본적으로 네모반듯한 돌로 죽 늘어 쌓은 체성體城과 그 위에 몸을 숨기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성가퀴 또는 여장女牆으로 구성된다. 이 여장은 다시 위에 지붕처럼 얹은 옥개석屋蓋石과 여장 안에 사격을 목적으로 한 총안銃眼으로 이루어진다. 총안은 밖에서 보았을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원총안遠銃眼과 직사각형 모양의 근총안近銃眼으로 구분된다.



이화梨花마을은 혜화역과 동대문역 사이, 낙산공원 밑에 위치한 마을로 혜화역 2번 출구를 통해 나오면 곳곳에 설치된 이정표를 따라 쉽게 찾아갈 수 있다. 혜화역 고객센터에서는 '이화동 벽화마을 착한 여행 지도'를 나누어주는데 벽화마을의 위치와 더불어 주요 장소들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벽화마을을 꼼꼼히 즐기기에 좋다. 이화마을은 1950년대 판자집들이 모여 형성된 곳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품없는 달동네였다. 그런데 2006년 공공미술 추진위원회에서 '낙산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소외된 지역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고자하였고 이에 70여 명의 작가가 참가하여 동네 곳곳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했다. 삭막하기만 했던 이화마을은 계단에는 화사한 꽃이 피고 벽에는 귀여운 동물들이 자라나는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마을로 변모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이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기억을 수집하여 작품에 담아 냈기 때문에, 이화마을의 벽화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덕분에 현재 이화마을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랑 받고 해외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서울의 명물이 되었다. 만일 늦은 오후에 이화마을을 방문한다면 벽화마을을 둘러본 후 해가 저물 무렵 가까운 한양도성길과 낙산공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서울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인근의 가볼만한 곳

이화장梨花莊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대통령에 취임할 때(1947~1948)까지 사저로 썼던 곳이다. 본래는 조선 중기 문신인 신광한申光漢의 집이 있던 곳이며,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麟平大君의 장생전長生殿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승만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성했다는 조각정組閣亭과 생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이승만 박사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적 제497호이다.



.. 퀴즈 QUIZ ..




1. 혜화문의 다른 이름은 ()이다.
a. 소의문 b. 동소문 c. 광희문
2. 말바위는 북악의 산줄기의 말단이라는 의미가 전하며 말의 ()을(를) 닮았다고도 한다.
a. 머리 b. 엉덩이 c. 안장
3.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는 ()이다.
a. 최순우 b. 전형필 c. 이승만
4. 외룡공원의 모습은 ()이(가) 누워있는 형상이다.
a. 소 b. 말 c. 용
5. 4소문의 이름은 소의문, 광화문, 창의문, ()이다.
a. 승례문 b. 혜화문 c. 숙정문

.. 안내사항 ..



<점심식사 장소>

비상연락처 : 모영환 010-2269-1698

주최 · 주관 · 후원	유학대학장 유학대학원장 양현재전재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기 획	유학.문과대학행정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유학창의인재양성사업단	편집총괄	양현재재감 모영환
 성균관대학교 총괄	편 집	양현재조교 박대성 양현재조교 안희민 학장실조교 최혜연

제 1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成均館大學校
SUNG KYUN KWAN UNIVERSITY

甲子寅山重刊